

2 인터뷰- 취임 3년 맞은 김진상 총장

“남은 임기, 학생 중심 교육 혁신으로 증명하겠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우리학교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인 김진상 총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대학주보, 양캠프 대학의소리방송국 VOU, 영어신문사)는 김 총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내 과제를 물었다.

취임 3년 차 소회가 궁금하다.

임기 4년 중 3년째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역할은 학술이 핵심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연구와 교육, 그걸 지원하는 공간과 재정이 있다. 그것을 각각 독립된 업무 영역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그마한 성과도 있었다. 세계대학평가 상승, 우수 교원 확충, 대형 국가연구사업수주와 교육지원사업 최고등급 선정 등이다. 다만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과의 격차는 분명히 있다. 재정 격차, 교육과 연구 수월성에 기반한 위상 격차가 있다. 그걸 인지하고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 혁신, 연구 혁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탑 티어 대학으로의 도약이다.

대학교육에 AI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 1주년 때 'AI 교육 혁신'을 거론한 바 있지만 아직 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혁신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AI 역시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 이전에 기본 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I 시대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숙고하고 있다. AI 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는 AI를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내재화하는 'AI-Native University'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혁신 방향은 크게 '교육과정 혁신', '학생 경험 혁신', '인프라와 플랫폼 혁신'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학 전체가 AI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학생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수자 중심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에 AI 중심 교육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바탕으로 학생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산하 언론4사는 취임 3년차를 맞은 김진상 총장을 만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융합 교육체제 고도화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 다전공이 의무화됐다.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신입생들의 불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융합적인 역량과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맞춰 학생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제도다. 특히 2026 학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같은 형태의 다전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영될 미래교육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교육과정 운영, 이수체계 관리, 학생 안내와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우려도 있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분반 확대, 수강인원 조정, 온라인 강의 병행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다. 또한 공간관리시스템을 통해 강의 공간 운영 역시 효율화하고 있다.

후만타스칼리지 15년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설립 취지 퇴색에 대해 구성원들의 걱정이 있다. 최근엔 행·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총장

께서는 후마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공학자로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면서도 밑바탕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자연계 학생은 사람과 세상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고, 반대로 인문사회계는 과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후마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중요한 일이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후마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과거의 방식만론 학생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후만타스의 진화'가 필요하다. 후마는 앞으로도 사유 중심의 교양교육이라는 본질을 더 분명히 해야 하며 본질은 시대 변화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학습 방식과 평가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후마가 여러 전공을 연결하는 단일 학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난 5월 공대 분관 건립 발대식 이후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높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양캠프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총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와 효율화시킬 것

인지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만큼 그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획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절차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현재 본격적 추진 단계로 공사 입찰이 진행 중이다. 7월 중 착공식을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학관 분관은 강의실 확충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교육·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항상 공간이 부족인데, 공간 부족이 이슈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학교가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 공간관리시스템, 복합형 학습 공간과 학교 근처 외부 공간 임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 확충은 우리학교가 처한 중요 현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3년간의 변화는 재정 관리 수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구조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학교 재정은 교비 약 5,400억 원과 대외 연구비 약 2,000억 원을 포함해 약 7,4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요 경쟁 대학들의 재정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기간 내에 1조 원을 목표로 지금의 연구

비를 2,000~3,000억 더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등록금 의존 구조를 넘어 정부·기업·지자체·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에 전략 배분하는 것이다. 셋째, 지출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점검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예산 책정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매년 등록금 인상이 예측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등록금 협상은 갈등 반복 우려가 크다. 인상을 산출의 객관적 근거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학생 사회 간 비용 분담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매년 시기에 쫓기는 반복적인 협상과 갈등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등록금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과 집행내역,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분명하게 공개하겠다. 재원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면에 계속 →